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전공

손 성 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강버들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전공

손 성 여

손성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23일



주심 교육학박사 원 효 현 (인)

위원 공 학 박 사 박 종 운 (인)

위원 교육학박사 강 버 들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모의 양육태도	6
2. 대학생활적응	12
3. 학업스트레스	15
4. 선행연구 고찰	20
III. 연구 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연구도구	25
3. 연구절차	29
4. 자료분석	30
IV. 연구 결과	31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1
2.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 간의 차이	35

3.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8
4. 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40
5.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42
 V. 결론 및 제언	51
1. 논의 및 결론	51
2. 제언	61
 참고문헌	63
부록	71



표 목 차

<표 III-1> 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	26
<표 III-2>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	27
<표 III-3>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	29
<표 IV-1>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32
<표 IV-2> 각 변인들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34
<표 IV-3>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대학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간의 차이	35
<표 IV-4>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39
<표 IV-5> 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	41
<표 IV-6>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44
<표 IV-7>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46
<표 IV-8>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47

The Effect of Mother'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KAIST Studen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Academic Stress

Sung-Yeo S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discusses the impacts of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students at KAIST on adaptation to college and academic stress. This study helps the students to develop self-awareness through self-reflect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college life by preventing the school maladjustment problems.

The main topic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Do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affect adaptation to college?*
- (2) Do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affect academic stress?*
- (3)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to college and academic stress, related to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202 students at Sou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KAIST) in Daejeon participate in the research.

Three different instruments measure each variable: (1)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scale developed by Seong-shim Oh and Jong-seong Lee(1982), (2)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developed by BeKer and Siryk(1984), translated into Korean by Jin-won Hyeon and finally revised by Hwa-jin Cho, (3) Academic stress scale developed by Mi-hyang Oh and

Seong-moon Cheon(1993).

SPSS Statistic V23 analyzes the data. The frequency and the percentage produces the sampling distribution of a given population. We also implement Cronbach alpha, correlation analysis,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tc.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s on the impact of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daptation to college, but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cademic stress. The means of the female students' affectionate-hostil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nd social adaptation to college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male students'.

Second,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impacts remarkably on adaptation to college. Among the subcategories of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the Affectionate-Hostile influences general adaptation to college. Also, it has positive influence on social adaptation. The Rational-Irrational subcategory has no influence on the students' general adaptation to college, but has positive influence on academic adaptation. The Autonomous-Controlling subcategory has no impact on the students' general adaptation to college.

Third,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demonstrat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n academic stress. The Rational-Irrational has negative influence on general academic stress and all the subcategories; stress resulted from grades, test performance, the class, and learning. The Affectionate-Hostile and Autonomous-Controlling have no influence on academic stress.

Fourth, adaptation to college correlates to academic stress. Stress resulted from grades influences negatively on general adaptation to college, including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and personal affective adaptation. Stress from the learning has negative impact on academic adaptation. Stress from test performance and the class shows no relation with general adaptation to college.

Finally,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demonstrat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both adaptation to college and academic stress. The Affectionate-Hostile have positive influence on general adaptation to college. Stress from the grades influences negatively on general adaptation to college and all the subcategories. Stress from learning has negative influence, but stress from test

performance and the class has no influence, on academic adaptation. Therefore, the affectionat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increases adaptation to college and the rational attitude lowers academic stress,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affectionate and rational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The study focuses not on academic-related but on affective-related research of the students at KAIST. Utilizing this data improves the quality of the students' college lives at KAIST and also helps re-examine the desirabl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학업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에 의해 큰 스트레스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지금 대학생들 중 82.9%는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며(에듀 동아. 2017),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또한 급속히 상승한다고 한다. 2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8년에는 46.1%였으나 2012년에는 69.2%로 상승했으며 현재까지 상승폭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의 스트레스가 30대 스트레스에 비해 3배나 높다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19세~29세 청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아시아투데이, 2014). 또한 10대~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결과를 통해 위에서 열거한 스트레스 문제가 청소년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스트레스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다.

위의 통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겪고 난 이후에 다시 학업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큰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발달상 특징을 Erikson(1986)의 심리발달 8단계로 볼 때 친밀감과 고립감의 시기라고 보는데,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는 정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이때 적절한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어야 자신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이를 실패하면 삶이 고립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친밀감과 고립감의 시기’라고 칭했다. 특히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두고 성적위주의 공부만 강요받았던 고등학교 시절에서 벗어나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폭넓은 자유와 선택, 높은 학문적 요구 및 새로운 친구 등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독립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직업의 선택 및 직업 준비 등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을 통해 본격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발달과업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학 생활을 잘 적응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인간상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후에 이어질 직업 선택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사고로 이어져 주변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학업포기 등과 같은 개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청년 문제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도한 학업적인 부담과 압박 속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학생들에게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이 충분히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학교는 긴 시간에 걸쳐 학업성취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생들 간에는 학업적인 경쟁 구조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불가피하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 문제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이어진다. 대학문화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는 배움이나 성취의 기쁨이 배제된 채 학점관리와 취업준비로 내몰려져 있다. 이런 현실은 대학생들에게 학점과 취업이라는 꼬리표를 매단 채 대학생활 내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가 없게 만들었다. 비단 몇몇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이런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은 만성적인 문제로 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있어서 체감온도가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가운데 본 연구는 카이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높은 학업 부담과 학교와 교우관계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같은 대학 환경 안에서도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 지각 정도에는 개인차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높은 학업스트레스 속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통해 높은 학교만족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대학생활 부적응과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키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다. 서로 다른 학생들의 개인차를 놓고 볼 때 개인차를 결정짓는 요인이 현재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내부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개인의 잠재력과 저력으로 볼 수 있다. 청년기 이전에 내재된 개인의 잠재력의 근원은 결국 출생에서부터 이어진 부모의 양육에서 오는 성장과 발달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장과 발달의 원초적인 힘은 결국 주 양육자였던 모의 양육태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 학생들의 개인차를 모의 양육태도라고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를 세 변인으로 정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변인에 대한 탐색적인 자료는 없었으며, 세 변인을 동시에 탐색하는 선행 연구 또한 아직은 없었으므로 이번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내적 자기 점검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고, 학업과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 점검을 통해 학령

기 자녀의 학업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서지지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 및 향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문제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연구목적과 내용에 맞게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의 양육태도

모의 양육태도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양식을 말한다. 주로 자녀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 태도에 대한 반응방식과 자녀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 관계의 질이 결정되고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모의 양육태도는 자녀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학생의 지각 정도를 척도로 사용하며 모의 양육태도에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 세 가지 하위요인을 척도로 정의하며 모 또는 어머니로 혼용하며 사용하기로 한다. 사전적 의미로 모(母)는 어머니 또는 모친과 유의어로 함께 사용하며 어머니는 명사로 자기를 낳아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해석된다.

나. 대학생활적응

대학생들의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대학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세 가지 하위요인을 척도로 정의한다.

다. 학업스트레스

정규학업과 그 이외의 과외학업과 같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활동으로 인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적응 심리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에 성적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 네 가지 하위요인을 척도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모의 양육태도

가. 모의 양육태도 개념

부모란 인간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나 양식 형성에 최초의 모델이자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모든 과정에서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김재은, 1974). 부모가 만드는 가정환경 내에서 특히 부모양육태도는 지적,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인 영향 외에도 발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녀가 영향을 받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양육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해석에 따른 상호적인 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schaefer, 1965).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에도 깊은 영향을 주는 데 윤성한(1989)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는 지각의 문제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지각 간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지홍(1984)은 자녀 자신의 요인과 심리적 과정이 영향을 주게 되어 부모의 실제태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태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Medinnus(1965)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보다는 자녀의 자아수용과 관련지어 자아수용이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부모의 역할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의미를 알아 보

았다. 그렇다면 부모의 양육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부모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며,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게 되어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는 자녀의 미래상에 대한 부모의 양육환경이나 사회문화, 희망 등에도 유기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양육방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호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양육방식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틀로는 권위적인 양육방식, 허용적인 양육방식, 민주적인 양육방식이 있는데 어떤 양육방식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자녀의 성격 형성 및 지적 능력의 발달은 양육방식 뿐만 아니라 자녀의 타고난 본성이나 사회적 통념과 사회분위기, 부모의 이해와 압력 등 과도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부모의 양육방식에는 부모의 성숙한 태도와 정신력 및 실천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녀 탄생에 따른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게 성장시킨다는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방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녀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해 가면서 일정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간다.

앞서 말했듯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발달 외에도 성격과 지능, 행동 발달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애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녀는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되어 부모와의 관계성이 좋게 나타나고 대인관계나 학교적응에도 문제가 적으며 학업성취도와 회복탄력성 또한 높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가족관계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느끼며 청소년들이 사회적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나왔다(남상철, 2004; 김혜영, 2007). 그에 비해 거부적이거나 방임

적 또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의 인성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합이 되기 쉽고 일관성이 없는 양육태도일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민주적이고 애정적, 자율적, 수용적, 허용적인 태도로 많은 관심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표현과 탐구활동을 허용하고 칭찬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필요로 한다(이소라, 2008).

아동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때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며 자녀는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며 통솔력이 높은 자녀로 성장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부모의 엄격한 제한과 명령, 지시, 무관심, 거부적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낮은 자존감과 적대감, 부정적 자기 개념, 부적절한 세계관을 갖는 원인이 되어 대인관계 부적응과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하며 반항적이고 불복종적, 투쟁적, 열등성을 보인다고 한다(신명덕, 2007; 유미숙, 2008).

부와 모의 애정정도, 과잉간섭, 비일관성요소 등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Allen et al., 1996). 부와 모의 자율적 지지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자아발달 등 긍정적 발달, 높은 학업성취, 낮은 문제와 연결되어진다. 그와 반대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기의 불안, 우울, 사회적 거부 등 정신병리나 약물 오남용 등과 같은 문제행동과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Baber et al., 1997).

한 인간의 인격과 자질을 형성하는 데에는 수많은 손길과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며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격이 만들어지며 성격은 인간행동의 원동력으로써 이때 만들어진 성격은 평생으로 이어지므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총망라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중에서도 주 양육자인 모의 양육태도를 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Mahler(1975)은 대상항상성(object constancy)을 어머니에 대한 일정하고 고정된 표상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전체적인 표상으로 통합시킨다고 말한다. 또한 어머니의 의식적 · 무의식적 태도가 아동의 정상적, 병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의 성격형성 및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Mahler(1975)와 Sullivan(1953)은 유아는 어머니의 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애정을 끌어내면서 자신을 형성하고 자신의 양육자를 잃을 것 같다는 대상상실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현실세계와 분리된 자신의 느낌을 확립해 간다고 한다.

Ainsworth(1969)은 모의 민감성 또는 반응성은 인생초기의 애착형성과 다양한 변수를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영아에 대한 모의 신속한 반응은 이후의 의사소통 발달과 사회적 능력을 돕는다고 한다.

유미숙(2008)은 어머니는 자녀의 인격형성과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최초이자, 장기간의 대행자로서 아버지와 자녀, 가정과 사회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녀의 성격과 자기개념, 사회적응력, 생활관습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Hartup(1983)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의 토대가 되고,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을 발달시킨다고 한다.

Winnicott(1958)는 ‘한 아기와 같은 것은 없다’라는 표현에서 유아는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어머니의 역할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한 건강한 성장을 강조했다.

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불안과 우울을 낮아지게 하고 공격행동

도 적어지게 하며(이정숙, 2014). 자녀의 위축행동을 낮추어 주며(박서영, 2007). 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지만 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최인호, 2010).

Schaefer(1965)는 신생아기부터 청소년 이전의 장기간 동안 아동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이론을 정립하였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주 양육자인 모가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단계별 양육손길은 달라져야 한다. 그로 인한 영향은 자녀의 성장과 지능 및 과제수행능력에도 현격한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게 되므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모의 양육태도 구성 요소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태도지각검사를 박설아(2013)가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한 후 서현석(2014)이 재수정한 부모양육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요인 4가지는 애정-적대 양육태도, 자율-통제 양육태도, 성취-비성취 양육태도, 합리-비합리 양육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애정-적대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격려와 칭찬, 대화 등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양육태도이다. 적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일이나 관심에 외면하거나 위협조적이며 자녀와

의 관계에서 비난과 체벌을 자주 사용하며 자녀의 단점을 강조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2) 자율-통제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지나친 감독이나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처리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하는 민주적인 양육태도이다.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며 자녀에게 엄격한 제한을 두며 간섭이 심하고 설명이나 설득보다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이다.

(3) 성취-비성취 양육태도

성취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주고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활동을 권장하고 끈기 있게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격려하고 적절한 관심을 보이는 양육태도이다.

비성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맡은 일의 책임여부에 무관심하며 새로운 일이나 경험, 호기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이다.

(4) 합리-비합리 양육태도

합리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중시하고 일에 대한 동기나 근거를 제시하며 자녀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성적이고 일관적인 바람직한 양육태도이다.

비합리적 양육태도는 일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따지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비일관적인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이다.

2. 대학생활적응

가. 대학생활적응의 개념

인간은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화와 균형을 훌륭한 적응단계로 보았으며,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은 삶을 즐기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 정신적 평행상태를 유지시켜 나간다. 갈등상황에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며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이며 대처 능력 또한 높혀 간다.

대학생 시기는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6단계로 18세~24세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따뜻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하고 직업을 갖고 이성을 사귀며 성적, 사회적으로 친근감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고립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 시기에 사회 참여나 사회적 관계를 피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열중할 때 고립감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관계 맺기를 하게 되므로 고립감의 시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인간 발달의 과정으로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적응해 가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인 중년기의 삶의 질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진다.

Astin(1993)는 학업과 가족관계, 대학 내 대인 관계, 교수 환경, 학생들의 성격이나 자아개념 등 심리적인 요소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uh(1995)는 입학 전 인적 배경이나 학생활동, 대학교 환경 등이 대학생

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했고, 그 외에도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애착과 분리 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손꼽았다. 성인 초기인 대학생들에게 적응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은 학교에 대한 적응이다. 대학생활적응은 적응의 주체를 대학생으로 보며 학생을 둘러싼 환경을 대학 환경이라 보았을 때 학업과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은정, 1992).

앞서 말했듯이 대학생들의 적응문제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적응을 핵심적 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신체적 욕구와 성격적 욕구가 집중적으로 표출되어 정서적으로 보다 강력해지고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생리적, 사회적, 자아 발달의 욕구가 함께 나타난다. 그러므로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은 학업 단절뿐만 아니라 개인적 욕구 좌절을 통해 이후의 사회적 성장발판의 중심점이 깨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지각된 대학생활적응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한다.

나. 대학생활적응의 구성 요소

Beker와 Siryk(1984)의 대학생활적응 척도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역한 후 조화진(2004)이 만든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들의 적응을 결정해주는 성격적, 환경적 요인들의 역할을 알아보고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졌다. 하위요인은 학업적

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적응

학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학업적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나가는가를 평가하는 요인이다. 학업적 요구에 부딪혔을 때 대처방식, 학업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만족도, 학업에 대한 동기, 시간관리, 목표의식 등이 학업적 적응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오미진, 2014) 사회적지지 중에서 교수의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학업적응이 높게 나타난다.

(2) 사회적응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사회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나가는 것을 평가하는 요인이다. 사회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교수 및 교우들과도 원활한 의사소통, 부모나 친구와 같은 조직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사회적응은 정서지능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지지적 정서조절을 잘 하는 사람이 사회적응이 높게 나타난다.

(3) 개인정서적응

개인의 인성형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본질이나 위치, 역할 등 자기탐색과정을 통해서 적응하는 것을 평가하는 요인이다.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 가치 등이 포함되며(오미진, 2014), 자기탐색을 통해 자기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개인정서적응 수준 또한 높게 나왔다(박선영, 2003).

(4) 대학환경 적응

대학생활을 통해 학교에 대한 애착과 학교의 질에 대한 만족도,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와 만족감을 평가하는 요인이다. 대학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태도를 의미하며 물리적, 환경적 지원을 통해 학생은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만족감에 영향을 받는다. 적응 방법으로 동아리 활동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학교 내 활동도 충분한 영향을 주었으나 대학환경 부적응을 겪는 학생들은 학업을 중도에 탈락한다. 현실적인 기대가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중퇴 비율이 높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 중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학업스트레스

가. 학업스트레스의 개념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익히 잘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안녕을 위협 받는 것으로 일종의 개인과 환경과의 부적응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또한 환경 변화에 발 빠른 적응이나 요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내·외적 요구에 대해 개인의 자원으로 적응해 나가기 부담스럽거나 불가능으로 인해 정서적인 긴장이나 괴로움을 겪게 되는 단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는 학업문제가 가장 크며 그 외에도 가정문제, 이성문제, 친구문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학업스트레스라고 부르는 데 학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의미이며 미래 성공을 가름하는 척도로 해석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있어서 학업스트레스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업스트레스는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그 일이 너무 힘들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과 같이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한다(오미향, 천성문, 1994).

또한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부적응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며 우울로 인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이현웅, 박윤정, 2011). 김계현 외(1996)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성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낮은 학업 성적은 자신의 가치 저하로 인식하며 심한 좌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요소로 인식 한다.

둘째, 시험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시험 불안은 입시라는 환경적 요구에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결여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초조, 불안, 우울, 절망감을 느끼며 학업 포기, 등교 거부, 가출, 비행, 약물 남용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적 발작이나 자살 시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셋째, 학업능력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도 생각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학습 부진은 학생에게 좌절감을 주고 부모에게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주기도 한다.

넷째, 공부에 대한 회의와 동기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에 시간을 쏟으면서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이다.

다섯째, 학업과 관련된 다양하게 파생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지나친 학업 몰두로 인해 교우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따돌림을 받거나 성적 부진에 대해 무시나 놀림, 성적 경쟁으로 인한 교우간의 갈등, 성적으로 인해 부모 자녀간의 갈등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이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 환경이 학교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면서 학생의 신분에서 학업 성취는 학생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때 성적 평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매우 중요한 평가도구로 부각되고 있으며 성적의 결과는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학생의 성적 향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실정이다. 이런 지원 하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요구나 기대는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조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야기 시키며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소통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등 급기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는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와 성적이 주는 학업스트레스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시험과 평가 불만, 긴장, 우울, 초조 등의 형태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중 · 고등학생, 다시 말해 청소년기의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한국의 교육 실정에 따르다 보니 다양하거나 특별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생이 되었다. 갑자기 변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발달과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 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대학이라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 결과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로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대학생활에 대해 전반적인 부적응과 어려움을 호소한다. 성적과 시험, 수업, 과제, 성취압력 등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청소년

과 비슷하지만 청소년과 달리 대학생들은 보고서, 발표, 조별 과제 등과 같은 학업과 관련된 과업적인 요구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끊임없는 경쟁과 성적 관리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사적 요소, 환경적 요소, 진로 요소, 대인 관계적 요소가 포함된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학교생활에서 공부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압박으로 인한 긴장과 근심, 공포, 우울, 초조의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울증, 강박장애, 자살충동, 자기비하,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 등을 들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 격려를 잘 하지 못하며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고 과제에 대한 집중이나 몰입, 성취동기나 끈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 과제에 대한 잦은 실패로 이어지면서 낮은 자존감과 자아 효능감 저하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상이 계속 정립되어 급기야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물론 특목고를 졸업한 카이스트 학생들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해 지적 능력이 높은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학업적 압박감은 더욱 크며 성적 결과로 인한 무력감과 자기 비하, 상대적 열등감을 더 크게 호소하게 만들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학업적 성취 경험이 높았던 학생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높은 학업 성취 요구에서 오는 압박감은 학생 개인의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지각된 학업스트레스를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한다.

나. 학업스트레스의 구성 요소

오미향과 천성문(1993)이 개발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 직접적인 관련성과 대학생들에게 보다 더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김혜자(2006), 이은수(2012)의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에는 성적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이며 하위요인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생략하기로 한다.



4. 선행연구 고찰

가.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연령대에 따라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차이는 조금씩 발생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서는 온정적,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허용적, 방임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게 나왔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긍정적으로 지각한 집단이 부정적으로 지각한 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높게 나왔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영, 2002).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도 더 긍정적이고 학습동기도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수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습동기도 높고 대학생활적응수준도 높게 나왔다. Leung 외 (2004)는 어머니의 관심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현재와 미래의 자녀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애착적 부모양육태도와 감독적 부모양육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지각 했을 때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규칙 등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왕혜옥, 김광웅, 2004). 지나치

게 엄격하거나 지배적이면 자녀는 환경에 부적응하게 되며 강압적일 때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따른다. 자녀의 성격 특성과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양육에 온유형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이 자녀의 긍정적 성격 형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희, 김은향, 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애정-자율 일치 집단 부모의 자녀가 다른 유형의 자녀에 비해서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게 나왔으며, 적대-통제 일치 집단 부모의 자녀는 불일치 집단 부모의 자녀보다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게 나왔다. 부모가 애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며 사회적응을 잘 하는 반면에 부모가 부정적, 역기능적 양육태도를 보이면 아동은 반항적, 공격적 행동을 보이며 자기 통제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로 보아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아닌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 결과로 논해야 하나 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부모양육태도 속에 모의 양육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또는 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결과로 기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나.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부모의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으면서 학업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애정적 양육태도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왔다(남석진, 2015).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부모의 돌봄과 지원 및 지지와 같은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지나친 기대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이나 우울, 분노와 같은 정서적 문제와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수험능력의 불일치 폭이 클수록 자녀의 정서적 고통이 유발되어진다고 보고 되었다(박은희, 이소희, 2004). Shek(1999)는 긍정적으로 지각된 부모관계의 질이나 부모의 양육스타일, 부모의 특성, 부모-자녀간의 기능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Leung 외(2004)는 어머니의 관심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현재와 미래의 자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6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권에 상관없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밝혔다(Rohner, 2010).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들에 비해 자신의 인지력을 낮게 지각하고, 어머니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기대를 하게 되면 아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된다고 말했다. (우수영, 1998). 청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낮게 지각하고 조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지연경, 하유미, 윤기봉, 2014), 애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애정적이고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주어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높혀 주고 학업스트레스를 낮춰준다는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로 보아 부모 양육태도 또는 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 간에는 밀접한 영향이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아닌 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부모양육태도 속에 모의 양육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또는 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결과로 기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다.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연령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논의 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고학년의 학교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부적인 상관을 하며 학업스트레스가 1수준 증가하면 학교생활적응이 1/2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박상은, 2014). 또한 오영미(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과제스트레스와 학습내용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주었으나 시험스트레스와 성적스트레스, 학원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중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냈으나 이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남학생의 경우는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에는 관련이 없었다(한아름, 2013).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상관관계로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학교수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학업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아지고 자아타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능력이 높아진다고 밝혔다(박현석, 2013).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교급, 학업성적, 교우관계, 교

사와의 관계를 들 수 있으며,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만족도는 낮아졌다(김태련, 박정애, 1998). 아동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수업시간을 가장 힘들어 했으며(김수진, 2013) 학업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며 학업성취도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정정화, 2008) 학업스트레스가 적은 아동이 학교생활적응도 잘한다는 결과를 재차 강조했다(이미자, 2009).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로 보아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스트레스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학업스트레스는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 소재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학생 26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를 파악한 후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수정·보완을 거친 후에 최종설문지를 이용하여 202명의 연구 대상자로부터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가. 모의양육태도 척도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태도지각검사를 박설아(2013)가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한 후 서현석(2014)이 재수정한 부모양육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가지 하위 요인에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검사는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산출된 사전 신뢰도 값은 애정-적대: .80, 자율-통제: .89, 성취-비성취: .46, 합리-비합리: .88, 전체 신뢰도 값은 .91로 나왔다. 사전설문 시 신뢰도 값이 낮게 나온 성취-비성취 하위요인 문항을 제외시켜 구성한 최종설문지를 202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최종 신뢰도 값은 <표 III-1>와 같다. 최종 신뢰도 값은 애정-적대: .82,

자율-통제: .86, 합리-비합리: .84이며 전체 신뢰도 값은 .92로 나왔다.

최종설문지에서 모의 양육태도 척도 문항 수를 30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은 애정-적대 10문항, 자율-통제 10문항, 합리-비합리 10문항으로 구성했다.

채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은 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이며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았다.

<표 III-1> 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애정-적대	10(3)	1,4,7,10,13*,16,19,22,25*,28*	.82
자율-통제	10(3)	2*,5,8,11,14*,17,20*,23,26,29	.86
합리-비합리	10(6)	3*,6,9*,12*,15*,18*,21,24,27,30*	.84
전체	30(12)		.92

주, *는 역 채점 문항, ()는 역문항 수

나. 대학생활적응 척도

카이스트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Beker와 Siryk(1984)의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역한 후 조화진(2004)이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가지 하위 요인에 54문항이며 각 하위요인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검사는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산출된 값은 학업적응: .88, 사회적응: .92, 개인정서적응: .75, 대학환경적응: .44, 전체 신뢰도값은 .93로 나왔다. 사전설문 시 신뢰도 값이 낮게 나온 대학환경적응 하위요인 문항을 제외시켜 구성한 최종설문지로 202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최종 신뢰도 값은 <표 III-2>와 같다. 최종 신뢰도 값은 학업적응: .86, 사회적응: .89, 개인정서적응: .86 전체 신뢰도 값은 .93로 나왔다.

최종설문지에서 대학생활적응 척도 문항 수를 50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은 학업적응 17문항, 사회적응 18문항, 개인정서적응 15문항으로 구성했다.

채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 III-2> 대학생 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학업적응	17(9)	3,5,6*,10*,13,16*,18,22*,24*, 27*,29,33*,35,40,42,46*,50*	.86
사회적응	18(6)	1,4,8,9,14,15,17,20*,25,30 34*,37,38*,41*,44*,45*,47,49	.89
개인정서적응	15(13)	2*,7*,11*,12*,19*,21,23*,26*, 28*,31*,32*,36*,39*,43,48*	.86
전체	50(28)		.93

주, *는 역 채점 문항, ()는 역문항 수

다. 학업스트레스 척도

카이스트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미향과 천성문(1993)이 개발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 직접적인 관련성과 대학생들에게 보다 더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김혜자(2006), 이은수(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에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성적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검사는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산출된 신뢰도 값은 성적스트레스: .89, 시험스트레스: .62, 수업스트레스: .75, 공부스트레스: .82, 진로스트레스: .45, 전체 신뢰도 값은 .92로 나왔다. 사전설문 시 신뢰도 값이 낮게 나온 진로스트레스 하위요인 문항을 제외시켜 구성한 최종설문지로 202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최종 신뢰도 값은 <표 III-3>와 같다. 최종 신뢰도 값은 성적스트레스: .85, 시험스트레스: .76, 수업스트레스: .78, 공부스트레스: .81, 전체 신뢰도 값은 .93으로 나왔다.

최종설문지 학업스트레스 척도 문항 수를 총 33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은 성적스트레스 7문항, 시험스트레스 8문항, 수업스트레스 9문항, 공부스트레스 9문항으로 구성했다.

채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고 보았다.

<표 III-3>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성적스트레스	7	1,5,9,13,17,21,25	.85
시험스트레스	8	2,6,10,14,18,22,26,33	.76
수업스트레스	9	3,7,11,15,19,23,27,30,32	.78
공부스트레스	9	4,8,12,16,20,24,28,29,31	.81
전체	33		.93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D시 소재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4일~8월 10일까지 7일간 26명에게 134문항의 설문으로 사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각 척도별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전문가 3명으로부터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2017년 8월 18일~8월 27일까지 10일간 202명에게 113문항의 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설문 결과로 202부 전체 설문지를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Windows V.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Cronbach α)을 산출하였으며, 측정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의 남녀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단순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로 남(119명, 58.9%), 여(83명, 41.1%)로 구성되었으며, 남학생 비율이 많았다. 학년별로 1학년(30명, 14.9%), 2학년(28명, 13.9%), 3학년(31명, 15.3%), 4학년(57명, 28.2%), 5학년(56명, 27.7%)로 구성되었으며, 4학년의 참여 비율이 가장 많았다.

출신 고등학교별로는 일반고(59명, 29.2%), 과학고(97명, 48.0%), 영재고(21명, 10.4%), 외국어고(4명, 2.0%), 자사고(6명, 3.0%) 기타(15명, 7.4%)로 나왔다. 기타에는 검정고시와 외국계 고등학교가 포함되며, 과학고가 가장 많았다.

모의 연령대별로는 41세~45세(4명, 2.0%), 46세~50세(87명, 43.0%), 51세~55세(80명, 39.6%), 56세~60세(28명, 13.9%), 기타(3명, 1.5%)로 기타에는 60세 이상이 포함되며, 모의 연령대는 46세~50세가 가장 많았다.

모의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18명, 8.9%), 대학교 졸업(107명, 53.0%), 전문대 졸업(14명, 6.9%), 고등학교 졸업(55명, 27.2%), 중학교 졸업(8명, 4.0%)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모의 직업별로는 전업주부(106명, 52.4%), 서비스직(28명, 13.9%), 사무직(29명, 14.3%), 관리직(5명, 2.5%), 전문직(28명, 13.9%), 기타(6명, 3.0%)로 구성되었으며,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다.

<표 IV-1>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202)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19	58.9%
	여	83	41.1%
학년	1학년	30	14.9%
	2학년	28	13.9%
	3학년	31	15.3%
	4학년	57	28.2%
	5학년 이상	56	27.7%
출신 고등학교	일반고	59	29.2%
	과학고	97	48.0%
	영재고	21	10.4%
	외국어고	4	2.0%
	자사고	6	3.0%
	기타	15	7.4%
모의 연령	36세~40세	0	0.0%
	41세~45세	4	2.0%
	46세~50세	87	43.0%
	51세~55세	80	39.6%
	56세~60세	28	13.9%
	기타	3	1.5%

모의 학력	대학원 이상	18	8.9%
	대학교 졸업	107	53.0%
	전문대 졸업	14	6.9%
	고등학교 졸업	55	27.2%
	중학교 졸업	8	4.0%
	기타	0	0.0%
모의 직업	전업주부	106	52.4%
	서비스직	28	13.9%
	사무직	29	14.3%
	관리직	5	2.5%
	전문직	28	13.9%
	기타	6	3.0%

각 측정 변인들이 적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의 양육태도, 대학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정상분포를 확인하였으며 <표 IV-2>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Finch, West & MacKinnon(1997)는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킨다는 제안에 따라 왜도와 첨도를 구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절대 값이 2를 넘지 않으므로 가정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2> 각 변인들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02)

변인		M	SD	왜도	첨도
모의 양육 태도	애정-적대	4.12	0.53	-0.83	0.55
	자율-통제	3.78	0.66	-0.48	0.20
	합리-비합리	4.02	0.62	-0.78	0.56
합계		3.97	0.53	-0.62	0.12
대학 생활 적응	학업적응	3.47	0.60	0.07	-0.36
	사회적응	3.87	0.56	-0.47	-0.01
	개인정서적응	3.56	0.68	-0.40	-0.09
합계		3.64	0.52	-0.30	-0.10
학업 스트 레스	성적스트레스	2.29	0.82	0.35	-0.63
	시험스트레스	2.77	0.71	-0.20	-0.50
	수업스트레스	2.47	0.65	0.02	-0.49
	공부스트레스	2.81	0.73	-0.27	-0.31
합계		2.60	0.63	-0.17	-0.34

2.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 간의 차이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대학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대학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간의 차이 (n=202)

구분		M		SD		t	p
		남	여	남	여		
모의 양육 태도	애정-적대	4.05	4.22	.54	.48	-2.312	.022
	자율-통제	3.79	3.75	.64	.67	.385	.701
	합리-비합리	4.00	4.04	.60	.63	-.482	.630
	전체	3.94	4.00	.53	.52	-.793	.429
대학 생활 적응	학업적응	3.45	3.48	.63	.55	-.325	.742
	사회적응	3.79	3.98	.59	.69	-2.320	.021
	개인정서적응	3.55	3.57	.69	.65	-.133	.894
	전체	3.61	3.69	.54	.48	-1.075	.284

학 업 스트 레스	성적스트레스	2.31	2.24	.83	.80	.548	.584
	시험스트레스	2.76	2.77	.71	.69	-.158	.875
	수업스트레스	2.49	2.44	.66	.62	.585	.559
	공부스트레스	2.78	2.84	.73	.73	-.600	.549
	전체	2.59	2.59	.65	.61	0.81	.935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애정-적대는 여자(M=4.22, SD=.48)가 남자(M=4.05, SD=.54)의 평균점수보다 더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312, p<.05$).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응은 여자(M=3.98, SD=.69)가 남자(M=3.79, SD=.59)의 평균보다 더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2.320, p<.05$) 그 외의 다른 변인인 학업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른 남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카이스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여의 성별 차이는 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애정-적대, 대학생활적응에서는 사회적응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의 양육태도인 애정-적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했으며, 대학생활적응인 사회적응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카이스트 내 학교생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모에 대한 애정적인 지각이 높아서 정서적 안정성과 모를 통한 사회·정서적 지지가 강하게 이뤄짐으로써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카이스트 내 여학생들은 공과대학이라는 특수성과 소수의 여학생 비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에 더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IV-4>와 같다.

분석결과,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만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p<.05$) 반면, 자율-통제와 합리-비합리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설명력은 17.8%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애정-적대는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01$), 설명력은 13.5%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애정-적대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통제는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비합리는 학업적응에만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05$), 설명력은 13.0%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모의 합리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이 용이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하위요인은 전체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서는 사회적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합리-비합리 하위요인은 전체 대학생활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서는 학업적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자율-통제 하위요인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4>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종속변인	독립변수	b	β	t	p	R^2
학업적응	애정-적대	.070	.062	.536	.593	.130
	자율-통제	.039	.043	.506	.614	
	합리-비합리	.274	.280	2.227	.027	
사회적응	애정-적대	.341	.321	2.793	.006	.135
	자율-통제	-.014	-.017	-.200	.842	
	합리-비합리	.060	.065	.522	.602	
개인정서 적응	애정-적대	.264	.206	1.792	.075	.137
	자율-통제	.035	.034	.396	.693	
	합리-비합리	.176	.160	1.278	.203	
대학생활 적응(전체)	애정-적대	.226	.229	2.050	.042	.178
	자율-통제	.019	.023	.284	.777	
	합리-비합리	.168	.198	1.623	.106	

4. 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학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과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성적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IV-5>와 같다.

분석결과,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합리-비합리만 전체 학업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p<.001$) 반면,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설명력은 18.8%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모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일수록 학업스트레스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합리-비합리는 학업스트레스 모든 하위요인인 성적스트레스($p<.01$), 시험스트레스($p<.001$), 수업스트레스($p<.01$), 공부스트레스($p<.05$)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24.1%, 13.9%, 12.6%, 12.0%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모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일수록 성적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애정-적대 하위요인과 자율-통제 하위요인은 학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는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하위요인은 전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애정-적대 하위요인과 자율-통제 하위요인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5> 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종속변인	독립변수	b	β	t	p	R^2
성적 스트레스	애정-적대	-.043	-.028	-.256	.798	.241
	자율-통제	-.191	-.153	-1.928	.055	
	합리-비합리	-.476	-.358	-3.048	.003	
시험 스트레스	애정-적대	.169	.126	1.101	.272	.139
	자율-통제	-.093	-.086	-1.019	.309	
	합리-비합리	-.470	-.409	-3.271	.001	
수업 스트레스	애정-적대	-.064	-.052	-.455	.650	.126
	자율-통제	.098	.100	1.174	.242	
	합리-비합리	-.382	-.364	-2.891	.004	
공부 스트레스	애정-적대	.027	.020	.170	.865	.120
	자율-통제	-.116	-.104	-1.218	.225	
	합리-비합리	-.341	-.288	-2.275	.024	
학업 스트레스 (전체)	애정-적대	.022	.018	.164	.870	.188
	자율-통제	-.068	-.070	-.855	.393	
	합리-비합리	-.412	-.401	-3.299	.001	

5.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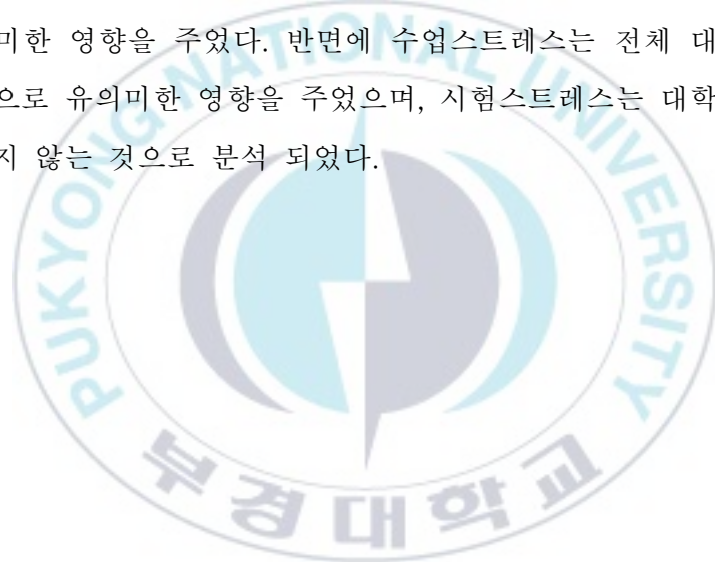
카이스트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과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성적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IV-6>과 같다.

분석결과,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성적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시험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학업스트레스 중 성적스트레스($p<.001$), 수업스트레스($p<.05$), 공부스트레스($p<.01$)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쉬우며 시험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 중 하위요인으로 성적스트레스는 학업적응($p<.001$), 사회적응($p<.001$), 개인정서적응($p<.01$)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63.4%, 23.5%, 39.2%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성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공부스트레스는 학업적응에만($p<.001$)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 시험스트레스와 수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공부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으나 시험스트레스와 수업스트레스는 학업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카이스트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학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성적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도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공부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서는 학업적응에서만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수업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만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시험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IV-6> 대학생 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종속변인	독립변수	b	β	t	p	R^2
학업적응	성적스트레스	-.313	-.426	-6.739	.000	.634
	시험스트레스	.056	.066	.891	.374	
	수업스트레스	-.097	-.104	-1.427	.155	
	공부스트레스	-.345	-.418	-5.571	.000	
사회적응	성적스트레스	-.226	-.330	-3.60	.000	.235
	시험스트레스	-.023	-.029	-.269	.788	
	수업스트레스	-.150	-.173	-1.638	.103	
	공부스트레스	-.007	-.009	-0.79	.937	
개인정서 적응	성적스트레스	-.236	-.285	-3.492	.001	.392
	시험스트레스	-.104	-.108	-1.137	.257	
	수업스트레스	-.156	-.149	-1.584	.115	
	공부스트레스	-.160	-.172	-1.780	.077	
대학생활 적응(전체)	성적스트레스	-.259	-.408	-5.797	.000	.548
	시험스트레스	-.020	-.028	-.336	.737	
	수업스트레스	-.134	-.067	-2.053	.041	
	공부스트레스	-.168	-.235	-2.821	.005	

나.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하위요소별 상관계수는 <표 IV-7>과 같이 모든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과는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는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r=.40$, $p<0.01$)를 보였다.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소는 애정-적대($r=.40$, $p<0.01$), 자율-통제($r=.26$, $p<0.01$), 합리-비합리($r=.40$, $p<0.01$)이며, 애정-적대와 합리-비합리가 자율-통제보다 높은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r=-.41$, $p<0.01$)를 보였다.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소는 합리-비합리($r=-.43$, $p<0.01$), 애정-적대($r=-.34$, $p<0.01$), 자율-통제($r=-.31$, $p<0.05$) 순으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모의 양육태도는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표 IV-7>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1	-											
1-1	.87**	-										
1-2	.83**	.52**	-									
1-3	.92**	.81**	.62**	-								
2	.40**	.40**	.26**	.40**	-							
2-1	.34**	.31**	.25**	.35**	.87**	-						
2-2	.32**	.36**	.19**	.31**	.83**	.59**	-					
2-3	.35**	.35**	.24**	.34**	.85**	.63**	.54**	-				
3	-.41**	-.34**	-.31**	-.43**	-.72**	-.76**	-.46**	-.62**	-			
3-1	-.48**	-.40**	-.39**	-.47**	-.68**	-.71**	-.45**	-.56**	.83**	-		
3-2	-.34**	-.25**	-.27**	-.36**	-.60**	-.61**	-.39**	-.54**	.89**	.70**	-	
3-3	-.29**	-.29**	-.15*	-.34**	-.61**	-.63**	-.39**	-.53**	.88**	.59**	.72**	-
3-4	-.33**	-.27**	-.27**	-.33**	-.64**	-.72**	-.37**	-.55**	.90**	.65**	.72**	.76**

* $p < .05$, ** $p < .01$, *** $p < .001$

1: 모의양육태도, 1-1: 애정-적대, 1-2: 자율-통제, 1-3: 합리-비합리

2: 대학생활적응, 2-1: 학업적응, 2-2: 사회적응, 2-3: 개인정서적응

3: 학업스트레스, 3-1: 성적스트레스, 3-2: 시험스트레스, 3-3: 수업스트레스,

3-4: 공부스트레스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상대적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성적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IV-8>와 같다.

<표 IV-8> 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종속변인	독립변수	b	β	t	p	R^2
학업 적응	모의 애정-적대	.054	.047	.617	.538	.637
	양육 자율-통제	-.050	-.054	-.940	.349	
	태도 합리-비합리	-.004	-.004	-.050	.961	
	성적스트레스	-.316	-.429	-6.349	.000	
	학업 시험스트레스	.047	.055	.736	.463	
	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077	-.082	-1.080	.281	
	공부스트레스	-.354	-.429	-5.631	.000	
사회 적응	모의 애정-적대	.338	.318	2.962	.003	.278
	양육 자율-통제	-.048	-.056	-.688	.492	
	태도 합리-비합리	-.101	-.111	-.928	.355	

	학업 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182	-.266	-2.794	.006	
		시험스트레스	-.062	-.079	-.742	.459	
		수업스트레스	-.098	-.112	-1.048	.296	
		공부스트레스	-.021	-.027	-.255	.799	
개인 정서 적응	모의 양육 태도	애정-적대	.276	.215	2.215	.028	.413
		자율-통제	-.023	-.023	-.306	.760	
		합리-비합리	-.083	-.075	-.700	.485	
	학업 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195	-.236	-2.747	.007	
		시험스트레스	-.135	-.141	-1.474	.142	
		수업스트레스	-.118	-.112	-1.158	.248	
		공부스트레스	-.169	-.182	-1.883	.061	
	대학 생활 적응 (전체)	애정-적대	.223	.226	2.729	.007	
		자율-통제	-.041	-.052	-.828	.409	
		합리-비합리	-.063	-.074	-.806	.421	
		성적스트레스	-.232	-.365	-4.965	.000	
	학업 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047	-.064	-.781	.436	.570
		수업스트레스	-.097	-.120	-1.448	.149	
		공부스트레스	-.179	-.251	-3.029	.003	

분석결과,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성적스트레스와 공부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설명력은 57.0%로 평균을 넘는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애정-적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용이하며, 성적스트레스와 공부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학업적응은 모의 양육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성적스트레스와 공부스트레스는 학업적응에 유의미한($p<.001$)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63.7%로 평균을 넘는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성적스트레스와 공부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응은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가 정적으로 유의미한($p<.01$)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성적스트레스가 부적으로 유의미한($p<.01$)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27.8%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애정-적대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용이하며, 성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서적응은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가 정적으로 유의미한($p<.05$)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성적스트레스가 부적으로 유의미한($p<.001$)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41.3%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애정-적대가 높을수록 개인정서적응이 용이하며 성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개인정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소 중에서는 사회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학업적응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업스트레스 중 성적스트레스와 공부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소 중에서 성적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소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공부스트레스는 학업적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 시험스트레스와 수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내적 자기 점검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고, 학업과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예방하며 더 나아가서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 점검을 통해 학령기 자녀의 학업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서지지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 및 향상시키고자 한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를 연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카이스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대학생활적응 중 사회적응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애정-적대 양육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왔다. 최경자(2002)의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중 수용적 양육태도만 성별 차이가 나타났고, 김인성(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카이스트 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에 대한 애정적인 지각이 높아서 정서적 안정성과 모

를 통한 사회 · 정서적 지지가 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카이스트 여학생들은 공과대학이라는 특수성과 소수의 여학생 비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더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서는 사회적응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응이 높게 나왔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응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다는 김경미(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 했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일반적응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적응을 보였다는 이쌍이(2010)의 결과와도 일치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전반에 걸쳐 더 잘 적응한다는 Baker(1987)의 연구결과와도 완전한 일치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부모로부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다른 양육태도로 양육됨으로써 자녀가 양육을 각각 다르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자아이에게 더 수용적이고 애정적이고 포용적으로 대함으로써 여자아이들은 부모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편이다. 특히 주 양육자인 모와는 더 면밀하고 밀접한 정서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또래관계나 대인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대학생활 속에서도 사회적응이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중 성적스트레스와 시험스트레스가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 평균보다 높다는 박현석(2013)의 연구 결과와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높다는 황혜정(2006)의 연구와는 불일치하였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가 성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정현숙(2010)의 결과와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민경수(2011)의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이것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성

적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하위요인은 전체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합리-비합리 하위요인은 전체 대학생활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자율-통제 하위요인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에서 애정-적대 하위요인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대 척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아지며 애정-적대 척도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력도 낮아진다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왕혜옥과 김광옥(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모의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진로 성숙도를 높임으로써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조연희(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애정-적대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고은희(2008)의 결과와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또래관계 형성과 학습활동에 더 높은 적응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교우관계가 좋아지고 반사회적인 문제행동이 줄어든다는 결과와 모의 애정이 많을수록 자녀의 불안과 우울이 낮아지고 공격행동이 적어진다는 결과와도 일치했다.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지지를 통해 자아효능감이 높아지고 수행

능력과 학업성취가 높아짐으로써 올바른 인성형성을 통해 학업적응과 학교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정숙(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인자(1989), 최미서(199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애정적 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책임성과 자제력, 사교성을 높여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사회 지향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는 자신감 있고 수용적이며 허용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적응력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정윤미(2015)의 연구에서 대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로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와도 본 연구는 일치한다.

따라서 주 양육자인 모로부터 애정적이고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의 손길을 받고 자란 자녀는 대학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양육 손길의 영향으로 힘든 학교생활을 잘 적응한다. 본 연구에서 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면 카이스트 학생들은 높은 학업과 뚜렷한 개인차로 학생들 간의 나타나는 편차는 대학생활적응에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로부터 충분한 지지와 공감을 받은 학생들은 자율적이고 수용적,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힘든 대학생활도 잘 적응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는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하위요인은 전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애정-적대 하위요인과 자율-통제 하위요인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리-비합리 척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지며

합리-비합리 척도가 낮을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높아진다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이유를 중시하며 일의 동기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합리-비합리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합리-비합리 양육태도를 통해 학업, 친구, 교사 및 학교생활의 스트레스가 더욱 많이 감소된다는 강보민(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하경(2008)의 선행연구에서 모의 양육태도가 적대, 통제, 비성취, 비합리일수록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유신복(2010)의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합리적일수록 고등학생이 학업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낮고 부모의 애정적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변인을 학업스트레스라고 말하는 남석진(2015)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것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수리·과학적 재능에 집중된 학문의 특성에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의 동기나 근거에 입각한 합리성은 정해지지 않은 정답을 찾기 위해 내적동기가 발현되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를 통해 정답을 체계화해서 만들어 내고, 근거에 입각한 사고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정답만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탐구하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카이스트 학생들의 합리성은 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만들어진 특성인지, 합리성이 있는 학생들이 수리·과학 학문을 선호하게 된 특성인지 알 수는 없으나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합리성은 각자의 강점이자 개인적인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성적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공부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에만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중 성적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 전체 및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으나 수업스트레스와 시험스트레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관계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1수준 증가하면 학교생활적응이 1/2 감소된다는 박상은(2014)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학업스트레스가 크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유발된다는 신현균(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 박현석(2013)의 연구 결과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중 수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일치로 볼 수는 있으나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서 수업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인 성적스트레스와는 다르므로 부분일치로 볼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전체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시험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학원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오영미(2014)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인 일치를 보였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중에서 성적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 높은 비율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성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이 높게 작용되어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적절한 성적에 따라 장학제도 적용이나, 근거리 기숙사 배정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군복무가 인정되는 대학원 진학에도 영향력 있는 단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성적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공부스트레

스는 대학생활적응의 학업적응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는 받고 있지만 대학생활적응 면에서 볼 때 학업적응에는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이스트 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자기 관리와 규제를 통해 심리적인 통제 능력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에서 사회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학업적응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업스트레스 중 성적스트레스와 공부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성적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부스트레스는 학업적응에만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시험스트레스와 수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애정적 ·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고,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남석진(2015)의 결과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이 전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학교생활의 적응과 그에 따른 만족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주 양육자인 모는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행동과 정서 및 심리적인 안녕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대학생

활적응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하위요인은 정적 상관관계로서 모가 애정적일수록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며 합리-비합리 하위요인은 부적 상관관계로서 모가 비합리적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주변사람과의 관계 맺기에도 유연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태도는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낮춰주며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기조절력이나 자아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학업적응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능력과 학습의 난이도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 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 간에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 해석과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결론으로 정리한다.

첫째, 성별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대학생활적응 중 사회적응만 유의미한 남·여 차이가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에서는 유의미한 남·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애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응력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대학생활적응력도 여학생이 높게 나왔다. 이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라고 지각했으며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수용적이라고 지각한 백승진(2008)의 연구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여자 대학생은 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지각하여 모를 통한 면밀한

정서교류를 기반으로 사회 · 정서적 지지가 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또래관계나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응은 정서지능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지지적인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응 또한 높다는 측면에서도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남 · 여 모두에게 영 · 유아기뿐만 아니라 대학생시기에도 인간의 성장과 환경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애정-적대와 합리-비합리만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았고, 적대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낮았다. 그러므로 애정적 양육태도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기생활에 만족감을 높혀 주며 합리적 양육태도는 학습을 계획하고 운영 및 조절해 나가는 내적조절력을 높혀 주었다. 따라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는 궁극적으로 대학생활적응력을 높혀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으로 합리-비합리만 학업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적 태도수준이 높으면 학업스트레스가 낮고, 비합리적 태도수준이 높으면 학업스트레스는 높다. 그러므로 합리적 사고는 결과보다 일의 동기나 근거에 비중을 두어 학업에 있어서도 끈기 있게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특징을 보인다. 모의 양육태도를 합리적인 양육태도로 지각하는 학생들은 모로부터 합리적인 사고가 체화되어 자기생활에 적절한 통제와 조절력을 기반으로 카이스트 내에서도 학업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고능력은 학령기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가늠하는 척

도로 인식된다.

넷째,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성적스트레스와 공부스트레스는 대학생활에 부적 영향을 주었으나 시험스트레스와 수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성적스트레스와 공부스트레스는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소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업적응에도 영향을 주었다.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질적인 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고,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을 높게 해주며 합리적 양육태도는 학업스트레스를 낮게 해 주었다. 모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음으로써 자녀는 학업과 학교생활, 교우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스트레스 지각수준도 낮아진다. 따라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일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대학생활적응력은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을 하며 한동안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으로 좌절적 정서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녀의 성장 열쇠는 반드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만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설문예 참여한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았다. 물론 양육에 있어서 전업주부가 주는 영향은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충분한 경제력과 따듯

한 양육 손길 중에서 굳이 선택한다면 본 연구자는 진정성 있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애정과 관심은 자녀로 하여금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며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좌절을 가르치지 않으면 끝없는 실패와 시행착오 앞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선순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를 바란다며 나무를 뿌리 채 뽑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본 연구는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문적 주제가 아닌 정의적 주제로 연구를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기초자료 확보를 통해 카이스트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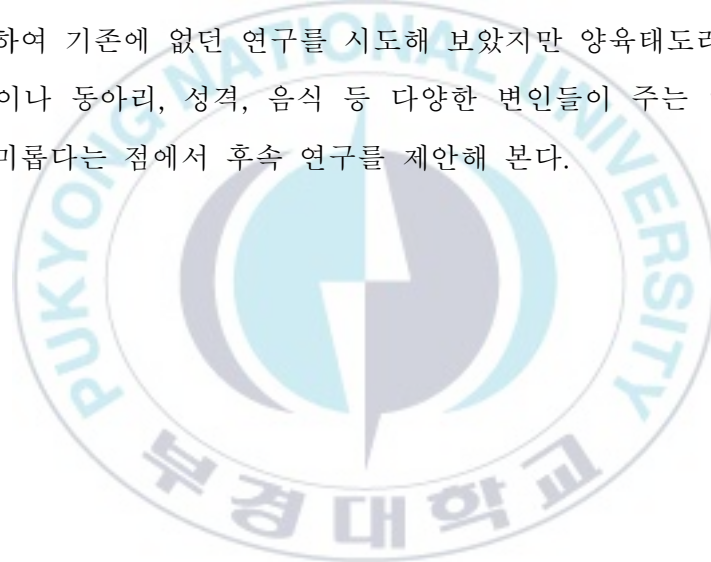
2. 제언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한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카이스트라는 학교 환경 내에서 학생들 간에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는 개인차가 발생된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개인차를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모의 양육태도를 변인으로 규정해 보았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수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카이스트 재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학교 차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중, 모의 양육태도를 변인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주 양육자의 영향을 고려하여 모의 양육태도로 한정하여 연구 했다는 점에서 부의 양육태도를 변인으로 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부모양육태도 결과를 비교 분석을 통해 학생들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편협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모의 양육태도 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본 연구는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한정하여 기존에 없던 연구를 시도해 보았지만 양육태도라는 변인 외에도 운동이나 동아리, 성격, 음식 등 다양한 변인들이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 강보민 (2012).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혜영 (200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화합도가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옥 (2004). 탱그램 자료 활용학습이 학습부진아의 공간감각능력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혜, 안선희 (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간 요구전략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12), 113-123.
- 김경혜, 이은영 (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Vol. 10 No. 1.
- 김계현 외 (1996).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 11 No. 2.
- 김금자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덕진 (199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1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탈력성의 조절 효과.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정, 김영희, 김계숙 (2003). 어머니의 아동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지 9(4), 392-39.
- 김은정 (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 김은하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성 (2010). 남·여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윤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남대학교 정치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1974). 한국 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희, 김은향 (201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디지털 융복합연구, Vol. 15 No. 3.
- 김하경 (2008).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 자기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 (2009).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와 시험불안과의 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자 (200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사회문제해결력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 (2008). 학령기 전 발달장애 아동에서 부모양육태도 및 형제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석진 (2016). 부모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 문선모 (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Journal of Gyeon , sang National University*, 19(2), 195-203.
- 문소영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은 (2014).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적응 유연성의 조절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03)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홍 (1984). 자녀의 부모양육태도 지각과 자아수용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석 (2014).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진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명확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덕 (2007). 초등학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1), 2002, 171-187.
- 오미진 (201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의미가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향, 천성문 (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
 소를 위한 임상 훈련의 효과.
- 오성심, 이종성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창의적 특
 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 1-15.
- 오영미 (2014).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
 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혜옥, 김광웅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 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소, Vol. 1 No. 2.
- 우수영 (1993). 어머니의 기대수준과 아동의 통제소재가 아동의 지각된 인
 지적 자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미숙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명확성의 관계. 숙
 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신복 (201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학업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한 (1989).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
 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자 (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 탈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조절효과탐색.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선영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라 (2008). 학업성취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 분석. 춘천교
 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
 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정서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순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 지위 및 자아지각과의 관계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수 (2012). 학업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 : 부모양육태도 중재 효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예은 (201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중학교의 학생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 (2014).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및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영 (2003).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반발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웅, 곽윤정 (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청소년학 연구, Vol. 18 No. 7.
- 임하라 (2013).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년복지연구, Vol. 16 No. 4.
- 장인실 (2012).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미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 향 :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근 (2014). 심리적 특성과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사회적 지지수준을 매개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화 (2008).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 (2005).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연경, 하유미, 윤기봉 (2014). 3세대 가족의 조부모와의 관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가정생활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Vol, 21 No. 12.
- 최승혜 (2009).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원과 증상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아 (200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원경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리욕구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호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청소년의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 (1974).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련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호중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생

- 애목표의 매개효과.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현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진현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매개효과.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Allen, N. J. & Meyer, J. P. (1996).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s: An examination of construct validity.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10(3), 49-61.
- Astin, A. (1993). What matters in colleges? :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Baber, B. K., Olsen, J. E. & S. C. (1997).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49-189.
- Erikson, E. H. (1968). Life cycl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9, 286-292.
- Finch, J. F., West, S. G., & MacKinnon, D. P. (1997). Effects of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on the estimation of mediated effects in latent variabl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2), 87-105.
- Hartup, W. W (1983). peerrelation. In P. H. Mussen(series Ed) & E. M.

- Hetherington (Vol. Ed), Hand 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103-196) New york : wily.
- Kuh, G. D. (1995). The other curriculum : Out of - class experience associated with student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 123-155.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
- Medinnus. (1965). Age and Sex differences in Conscience development Medinnus, GENE 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 109 No. 1.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Schaefer, Earl s. child development Inventory Vol. 36 No. 2.
- Sullivan, H. S. (1953). The International theory of psychiatry (p228-231) New York : W. W. Norton.
- Winnicott, D. W. (1958). Escritos de pediatriay psicoanalysis, Barcelona : Paidos, 1998.
- http://www.edudonga.com/?p=article&at_no=20170331102947694941 “대학
생 82.9%, ”취업 스트레스 시달린다“.

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현재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합니다.

평소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설문지에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 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쓰여 집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지는 질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거듭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전공

손성여 드림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 관련 문의사항은 손성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학년은?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⑤5학년 이상()
3. 귀하의 출신 고등학교는? ①일반고() ②과학고()
③영재고() ④외고()
⑤자사고() ⑥기타()
4. 어머니의 연령대는? ①36세~40세() ②41세~45세()
③46세~50세() ④51세~55세()
⑤56세~60세() ⑥기타()
5.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①대학원 이상()
②대학교 졸업()
③전문대학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중학교 졸업()
⑥기타
6. 어머니의 직업은? ①전업주부()
②서비스직()
③사무직()
④관리직()
⑤전문직()
⑥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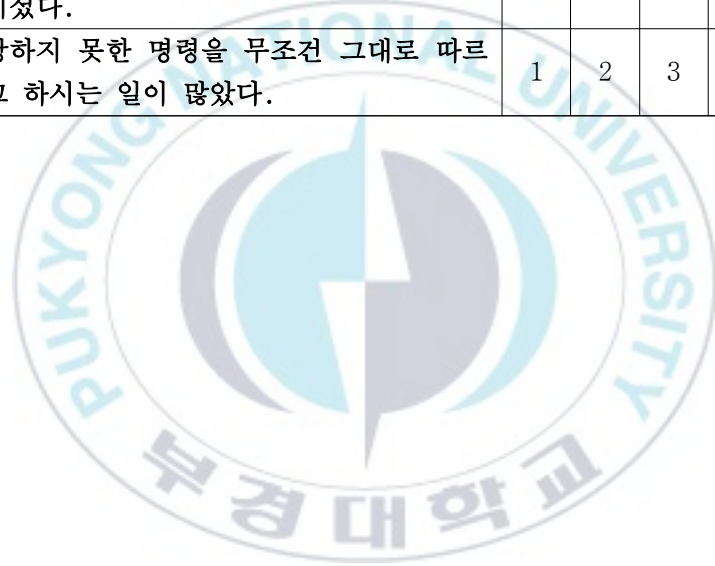
II. 모의 양육태도 척도

다음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를 떠올리신 후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다정하게 자주 애기 하셨다.	1	2	3	4	5
2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조차 직접 해주셨다.	1	2	3	4	5
3	내 친구들이 집에 오면 이유 없이 싫어하는 편이셨다.	1	2	3	4	5
4	밖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가족들을 보면 금방 풀어지셨다.	1	2	3	4	5
5	나의 일은 내가 하도록 해 주셨다.	1	2	3	4	5
6	형제자매들을 칭찬하거나 야단칠 때 차별하는 일이 없었다.	1	2	3	4	5
7	내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 주셨다.	1	2	3	4	5
8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셨다.	1	2	3	4	5
9	기분이 나쁠 때는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시는 때가 많았다.	1	2	3	4	5
10	가족들과 여가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1	2	3	4	5
11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셨다.	1	2	3	4	5
12	원인이나 과정을 무시하고 욕박지르는 경우가 많으셨다.	1	2	3	4	5

구 분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3	내 말을 무시하거나 욕박지르는 경우가 많으셨다.	1	2	3	4	5
14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되도록 나에게 요구하거나 시킬 때가 많았다.	1	2	3	4	5
15	손님이 오셨을 때와 가족끼리 있을 때의 태도가 다를 때가 많았다.	1	2	3	4	5
16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셨다.	1	2	3	4	5
17	나의 일을 내가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 주시는 편이셨다.	1	2	3	4	5
18	잘해 주시다가도 어떤 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야단치시곤 했다.	1	2	3	4	5
19	내가 질문을 하면 아시는 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셨다.	1	2	3	4	5
20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거나 행동을 통제하셨다.	1	2	3	4	5
21	꾸중을 하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1	2	3	4	5
22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관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 주셨다.	1	2	3	4	5
23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든 가도록 허락하셨다.	1	2	3	4	5
24	비록 자녀의 말이라도 합당하면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다.	1	2	3	4	5
25	내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으셨다.	1	2	3	4	5
26	대부분의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도록 해주는 편이셨다.	1	2	3	4	5
27	나와 한번 약속한 것을 잘 지키셨다.	1	2	3	4	5

구 분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8	나와 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	1	2	3	4	5
29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스스로 하도록 맡기셨다.	1	2	3	4	5
30	정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는 일이 많았다.	1	2	3	4	5



Ⅲ. 대학생활적응 척도

다음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또는 느낌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대학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5
2	최근 나는 긴장감을 느끼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1	2	3	4	5
3	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 해 나가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껏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왜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1	2	3	4	5
7	나는 최근에 기분이 매우 우울하고 울적하다.	1	2	3	4	5
8	나는 대학활동(동문회, 동아리 등)에 잘 참여하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시험기간 중에 잘 지내지 못한다.	1	2	3	4	5
11	나는 최근에 피곤할 때가 많다.	1	2	3	4	5
12	홀로 선다는 것, 내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	1	2	3	4	5

구 분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3	나는 나의 학업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14	나는 교수님과 공적인 만남 이외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	1	2	3	4	5
15	나는 이 학교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6	나는 학과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학교에서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	1	2	3	4	5
18	나의 학업적 목적과 목표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1	2	3	4	5
19	나는 최근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없다.	1	2	3	4	5
20	집이 그리워서 힘들다.	1	2	3	4	5
21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1	2	3	4	5
22	나는 최근 공부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3	나는 최근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1	2	3	4	5
24	나는 최근에 공부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1	2	3	4	5
25	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학과 이외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6	나는 최근에 학교상담소나 그외 심리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1	2	3	4	5

구 분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7	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 회의 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28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었다 또는 줄었 다.	1	2	3	4	5
29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많고 다양하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30	나는 대학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1	나는 최근에 너무 쉽게 화가 나곤 한다.	1	2	3	4	5
32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	2	3	4	5
33	나는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 하다.	1	2	3	4	5
34	나는 대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못하다.	1	2	3	4	5
35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	1	2	3	4	5
36	가끔, 내 생각은 너무 쉽게 뒤죽박죽된다.	1	2	3	4	5
37	나는 대학에서의 친목활동에 충분히 참여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8	나는 최근에 이성파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하 고 있다.	1	2	3	4	5
39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 해 걱정이 많다.	1	2	3	4	5
40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구 분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41	나는 최근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1	2	3	4	5
42	나는 지난 학기에 수강했던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43	나는 최근에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낀다.	1	2	3	4	5
44	나는 다른 학생들과 스스로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데, 난 그것이 싫다.	1	2	3	4	5
45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다니지 않는게 나았으리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6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내 학과 공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2	3	4	5
47	나는 무슨 문제든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 명 된다.	1	2	3	4	5
48	나는 대학생활에서 닥치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1	2	3	4	5
49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50	나는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IV. 학업스트레스 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긴장 및 압박감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1	2	3	4	5
2	시험 과목수가 많거나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	1	2	3	4	5
3	내용이 어려워 교수님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1	2	3	4	5
4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기가 싫다.	1	2	3	4	5
5	부모님의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1	2	3	4	5
6	시험을 자주 친다고 느낀다.	1	2	3	4	5
7	강의 시간이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다.	1	2	3	4	5
8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는 해야 한다.	1	2	3	4	5
9	성적이 나빠서 교수님이나 부모님께 꾸중이나 편지를 받았다.	1	2	3	4	5
10	시험기간이 다가올 때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11	강의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5
12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느낀다.	1	2	3	4	5

구 분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3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 또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다.	1	2	3	4	5
14	내가 공부한 것과는 다른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1	2	3	4	5
15	강의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되지 않는다.	1	2	3	4	5
16	각 과목에 따라 효과적인 공부법을 모른다.	1	2	3	4	5
17	성적표를 받을 때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18	시험문제가 어렵다.	1	2	3	4	5
19	하루 강의 시간이 많다.	1	2	3	4	5
20	공부 이외의 활동(동아리, 종교, 취미활동)에 시간을 빼앗긴다.	1	2	3	4	5
21	나의 성적이 다른 사람과 비교된다.	1	2	3	4	5
22	시험문제를 푸는 시간이 모자란다.	1	2	3	4	5
23	영어 실력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영향 받는다.	1	2	3	4	5
24	공부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	1	2	3	4	5
25	성적이 떨어진다.	1	2	3	4	5

구 분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6	결과가 나뉘었던 과목에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	1	2	3	4	5
27	강의 중 교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28	과제가 너무 많다.	1	2	3	4	5
29	공부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1	2	3	4	5
30	운동장이나 옆 강의실에서 나는 소음으로 교수님의 설명이 잘 안 들린다.	1	2	3	4	5
31	강의 도중 다른 생각이 많이 난다.	1	2	3	4	5
32	교수님께서 성의 없이 가르친다.	1	2	3	4	5
33	시험 칠 때 지나치게 긴장 되어 실수가 많다.	1	2	3	4	5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